

##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여성형상

교수 박사 김려숙

### 1. 서론

지난 시기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여성형상에 대한 연구는 일정하게 진행되어왔지만 주로 해당 시기 매개 나라 민족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개별적작가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소개와 해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녀자로 태어났다는 죄 아닌 《죄》로 하여 갇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녀성들에 대한 형상은 문학에서 독자적인 몫을 가지고 심화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분야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자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은 속박의 사슬과 원한뿐이였다. 조선의 봉건사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의 하나는 남존녀비를 계율로 삼아 모든 녀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구속하고 천대한것이다. 녀자는 아이를 낳고 음식이나 지어바치고 손이 오리발이 되도록 발을 가꾸고 길쌈이나 하는 집안의 머슴과도 같이 치부되고있었다. 젊어서 남편을 잃어도 홀몸으로 늙어 죽어야 하는것도 녀자였고 빗값에 팔려가는것도 녀자였다.》(《김일성전집》 제99권 67페이지)

녀성들의 운명문제는 녀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난 시기 녀성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되어왔다. 남성도 녀성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녀성은 사람이 아닌 물건취급을 당하였다. 그러니 물건짝으로 치부되며 운명을 통락당하여온 착취사회에서 녀성들의 처지가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필자는 녀성으로서 또 조선문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우리 녀성들의 운명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제나름의 주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듭되는 사색과 탐구를 하여왔다. 수천년세월을 흘러온 남존녀비의 력사와 그리고 그 력사에 종지부를 찍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은 파란많은 녀성들의 세기적수난사에 비껴든 하나의 극적인 대조이며 따라서 그를 반영한 문학의 형상세계 역시 극적인 대조를 이루지 않을수 없다.

수천년의 장구한 인류사와 더불어 창조되고 전승되어온 여성형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뿐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분야로 인정되고있다.

녀성형상이라고 하면 크게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들의 형상과 그와 대조를 이루는 녀성존중의 새 력사가 비낀 복받은 녀성들의 형상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필자는 지난 시기 《녀성과 문학》이라는 표제아래 두권의 책을 집필하여 내놓았는데 한권은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형상에 대한것이고 다른 한권은 녀성존중의 새 력사가 펼친 복받은 녀성들의 형상에 대한것이다. 이 책들을 쓰는 과정에 필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녀성형상문제는 독특한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로부터 세계적인 범위에서 녀성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많은 론의를 벌릴수 있

고 또 논문지면을 통하여 호상 교류를 확대할수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녀성형상에 대한 여러건의 소론문을 발표하여 녀성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학에 대한 리해를 주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한다.

문학작품의 세계와 그 공간을 통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조선녀성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하고싶고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생활상에 대하여 똑똑히 알도록 하고싶은것이 필자의 심정이다.

그의 한 고리로서 먼저 본론문을 통하여 지난날 남존녀비의 비참상이 비낀 녀성들의 형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녀성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던 구전민요형태의 가요 《시집살이》노래와 《잠노래》류형의 가요들, 시집살이의 고역이 다른 녀성들보다도 몇갑절 더 컸던 민며느리들의 설음을 토로한 민요 《민며느리》 등 여러 주제의 작품들과 소설 《민며느리》를 비롯하여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수난에 찬 녀성들의 운명사, 남존녀비의 력사는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도 공통적인것이였다. 따라서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반영한 형상 역시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학사에서 다같이 찾아볼수 있다.

프랑스작가 라쎬의 비극 《앙드로마끄》(1667)의 주인공 앙드로마끄와 빅포르 유고의 장편소설 《노뜨르담대사원》(1831)의 에스메랄다, 알렉상드르 뒤마의 장편소설 《동백꽃아가씨》(1848)의 주인공 마르그리트 고띠에, 도이첼란드작가 레썩의 희곡 《에밀리아 갈로티》(1772)의 주인공 에밀리아 등의 형상들을 실례로 들수 있다. 또한 로씨야작가 아. 오스트롭스끼의 희곡 《죄우》(1859)의 주인공 까찌리나와 중국의 이름난 작가 로신의 단편소설 《축복》(1924)의 상림아주머니와 같은 불우한 녀성들의 형상도 세계문학사의 갈피와 더불어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 2. 본 론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형상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은 어디까지나 착취계급사회에 근원을 두고 있는것으로 하여 깊고도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음을 형상적으로 확증해주었다는데 있다.

우리는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형상 다시말하여 지나간 문학사에 무수히 반영된 각이한 녀성들의 운명을 통하여 장구한 기간에 걸치는 녀성천시의 사회적악폐의 진면모를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리해할수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아담과 이브》의 신화도 남성과 녀성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자격으로 난것이 아니며 남성은 사람으로, 녀성은 남성의 한 부분으로 태어났다는 허황설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였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더불어 남성에 의한 녀성의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것이 법적, 도덕적성격을 띠고 완고한 생활인습으로 굳어져내려온 남녀불평등의 사회관계는 인류사가 줄곧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문제를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안고 흘러왔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착취사회에서 피압박근로인민대중은 모두가 무권리의 천대와 박해속에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여왔지만 그가운데서도 여성으로 태어난 죄 아닌 《죄》로 하여 보다 가혹한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를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여성들이었다.

낡고 불공평한 봉건적유습에 얽매인 여성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는 지난 시기 문학의 주요한 형상과제의 하나였으며 그 희생물이 되어 속절없이 스러져간 녀인들에 대한 형상은 이 시기에 창조된 여성형상에서도 기본을 이룬다.

착취사회에서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이 되어온 여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의미에서의 노래는 있을수 없었다. 남존녀비의 불평등한 력사는 여성들에게 노래라는 즐겁고 건드러진 생활의 가락을 안겨줄수 없었을뿐아니라 지어 그들을 인간세계밖으로, 문학세계밖으로 무자비하게 내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생활을 노래와 운률에 담아 여성생활에 관한 독자적인 형상세계를 창조하여왔다. 문학 또한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으며 여성들의 눈물겨운 생활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낡은 인습을 박차려는 그들의 립장을 항상 옹호하여왔다. 그러면서 봉건적인 유교도덕과 여성천시의 사회적 구속에서 여성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제나름의 방도를 끊임없이 모색하여왔으며 그 과정에 여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그들에게 봉건적인 질곡을 강요하는 낡은 사회제도 그자체에 있다는것을 알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반영하는데로 형상의 주되는 과녁을 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창작되어온 거의 모든 작품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단순히 폭군인 남편이나 몰인정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오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 넋과 육체를 깡그리 사로잡는 봉건적철쇄, 갇은 도덕의 《규범》들과 반인민적인 축첩제도와 같은 반동적인 착취사회 그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것임을 잘 알수 있다. 우리 문학뿐아니라 세계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둘러보아도 여성천시의 사회적풍조에 물젖어 여성들을 무턱대고 구박하고 괴롭히는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적기초에는 똑똑한 자기의 주견이 있어서라기보다 남성이라면 웅당 여성우에 군림하고 그들을 천시해야 한다는 봉건적인 도덕과 규범에 물젖은 그들의 낡은 사상관점이 놓여있다. 여성천시의 사회적불평등을 발가놓고저, 여성천시의 사회적근원을 뿌리채 밝혀내고저 정의의 편대를 들었던 문인들은 여성들의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주의의 생동한 화폭들을 수많은 창조하였다. 바로 그러한 작품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지난날 착취사회의 악폐속에서 수천년세월을 시달려온 여성들의 울분에 찬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것이며 눈물에 젖은 그들의 생활정경을 생동한 화폭속에 체험해보게 되는것이다.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여성형상이 안고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으로 계급사회의 첫시기를 거쳐 중세봉건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불우한 생활과 운명을 여러 주제의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생활화폭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는 데 있다.

지난날 여성들의 숨막히는 생활은 봉건적질곡과 함께 가부장적가족제도의 피해가 남달리 심했던 시집살이를 중심으로 하여 민며느리, 과부들의 생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우선 시집살이의 고역을 노래한 《시집살이》류형의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어 남존녀비, 봉건의 질곡속에서 허덕이던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노래하였다.

녀성들의 생활과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처녀시절보다도 많은 경우 시집을 가서 안해로서, 어머니로서 새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 녀성들은 남편과 아이들,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생활세계를 창조하여야 하며 이것은 곧 녀성들이 사회생활뿐만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뚜렷하면서도 독자적인 자기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난 착취사회에서 녀성들에게는 가정생활의 재미보다도 고달픔이 더 컸다. 시집에서의 생활은 출가한 녀성들에게 있어서 응당한것이였지만 그 생활이 것처럼 고통스러웠기에 《시집살이》라는 말도 하나의 낱말처럼 굳어지게 되였다. 지난날 차별적인 봉건유습에 시달리던 녀성들의 생활에서 가장 혹독한 고행중의 하나가 바로 시집살이여서 부녀가요가운데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 역시 애달픈 《시집살이》류형의 노래였다.

《시집살이》노래는 출가하여 시집에서 생활하던 부녀들의 시점에서 그들자신의 생활을 반영하여 창작된 구전형태의 서정가요이다.

...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쩔데까  
애야애야 말도말아 이살에서 신물난다  
고초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맵더라  
시집삼년 살고나서 미나리꽃 다피였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쩔데까  
아고애야 말도말아 시집살이 삼년만에  
붓끝갈던 이내손이 오리발이 되여지고  
삼단갈던 머리채가 숯밤송이 되였구나

(《조선구전문학연구》1 27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주체88(1999).)

이 노래는 옛날부터 녀성들속에서 불리워지던 구전문요형태의 가요 《시집살이》이다.

사촌형님에게 시집살이가 어떤가고 물어보는 녀성은 아직 시집살이를 체험해보지 못한 처녀이며 그의 물음에는 여러가지 의미적색채가 깔려있다. 이제 앞으로 당해야 할 자기의 시집살이, 무엇인가 호기심도 있지만 보다는 위구심과 불안감이 더 짙어보인다. 시집살이는 녀성들에게 지워진 불행과 운명의 명에였기에 시집을 가야 할 처녀들에게는 지금 시집살이를 하는 녀성들의 생활과 운명이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것이다.

열세무명 반물치마가 눈물씻기에 다 녹아버렸으니 시집살이하며 흘린 눈물은 그 얼마이며 고초당초보다 더 매운 시집살이, 3년 지나 미나리꽃 다 피여난 신세, 붓끝갈던 손이 오리발이 되고 삼단같은 머리채가 숯밤송이 되였으니 그 고역을 어이 다 말할수 있으랴. 이것이 바로 지난날 조선녀성들의 기막힌 시집살이의 고달픔이였다.

시집살이의 고달픔을 다른 각도에서 노래한것은 《잠노래》류형의 가요들이다.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녀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그리운것은 잠이였다. 그래서 부녀가요의 특이한 류형으로 《잠노래》라는 새로운 주제의 가요들이 창작되었을것이다.

잠을 쫓기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도 뒤말이 나고 흥이 날것을 두려워하는 녀성들 특

히 머느리들의 처지로부터 필사적인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지난날 시집살이가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고달픈 생활이었던 사정과 관련하여 그 설움과 애달픔은 여성들의 운명과 관련된 거의 모든 형태의 작품들에 다 반영되어있다.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은 시집살이와 직결된 민머느리들의 처지에서 더욱 눈물겹게 찾아볼수 있다.

민머느리란 남자의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키우다가 나중에 머느리로 삼는 여성을 말한다. 그런즉 민머느리는 어린 처녀애, 아직 머느리로 맞을수 없는 나이의 처녀아이인데 부모나 친척이 없어 돌봐줄수 없거나 너무도 가난하여 남의 집에 들여미는 처녀애들인지라 당시 가난과 눈치, 온갖 천대와 멸시를 숙명처럼 타고난 천더기들이었다.

민머느리들에게 있어서 시집살이의 고역은 다른 여성들보다 갑절 크다고 볼수 있다.

머리를 엇기 전 어린시절부터 남의 집에 민머느리로 들어가 머슴과 같이 부림당하는 것은 물론 일단 머리를 엇은 다음에는 혈육도 재산도 없는 빈털털이, 가난뱅이라고 보다 큰 수모와 멸시를 받아야 했다. 오죽했으면 소가 없는 집에는 민머느리가 들어온다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민머느리의 설움을 토로한 많은 민요들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민요 《민머느리》에서 노래되고있는것처럼 한살먹어 엄마죽고 세살먹어 아버지죽고 삼촌집에 가서 자라 눈치밥을 얻어먹고 여덟살에 민머느리로 들어가서 열한살먹어 머리엇었으니 열한살부터는 시집살이이다. 그래서 이후부터 토로되는 설움은 시집살이설움이다. 머리엇기 전 고생도 시집살이와 다를바없이 고통스러운, 종살이같은 생활이었지만 머리를 엇은 후의 시집살이는 또 그것대로 새로운 생활세계에서의 고생살이였다.

...

후초같은 시아바님  
마루끝에 나앉아서  
기슴매라 호령하고(김매라)  
고추같은 시어머님  
방문와락 열고보며  
베를 짜라 야단하고  
아이같은 서방님은  
저녁밥을 받고나서  
자리펴라 재촉한다

(《가요집》(1) 368~369. 문예출판사, 1983.)

후초, 고추같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등쌀에 기를 못퍼는것도 그렇지만 아이같은 남편도 남자라고 제법 호통질이다.

민머느리신세는 중세봉건사회에서뿐아니라 해방전 민족수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여성들의 운명에 들쭉워진 하나의 멍에였고 사슬이였다.

1927년에 창작된 단편소설 《민머느리》(리기영) 하나만 놓고보아도 민족수난의 시기에

다같이 가난한 무산계급이었지만 녀자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해서 녀성들만은 인간이하의 수모와 멸시를 받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 소설은 민며느리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중세문학에서처럼 시집살이와 같은 세태생활의 측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요구에 비추어 참사랑에 대한 애절한 갈망과 그것을 짓밟는 봉건적인 인습과 착취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한층 승화시켜 형상하고있다.

지난날 녀성들은 조혼의 희생물이였다. 조혼은 강제결혼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다.

애국문화계몽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나온 구전가요 《철모르는 신랑자》는 희극적인 요소가 다분히 섞인 노래로서 지난날 녀성들이 겪은 불행가운데서도 어처구니없는 불행의 대명사인 조혼의 악폐를 생동하게 보여주며 그러한 봉건적악습을 향하여 비판의 화살을 묘하게 쏘고있다.

젓끝에서 떨어진지 사오년만에  
그의 부모 며느리에 눈이 어두워  
철모르는 신랑자를 장가들이니  
새 신부도 기가 막혀 눈물이 나네  
신랑자는 삼일만에 처가로 갈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스운 말로  
새각신데 저런 아들 벌써 있구나  
아니란다 그것은 새신랑자란다

(《계몽기시가집》 41. 문예출판사, 1990.)

조혼의 율가미가 얼마나 집요하고 허황한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혼의 주되는 희생자는 녀성들이였다. 5살짜리 아들같은 신랑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녀성, 바로 이것이 지난날 녀성들에게 강요된 또 하나의 기막힌 처지의 일단이였다.

물론 조혼이 녀성들뿐아니라 남자들에게도 강요된 하나의 봉건적구속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시집살이, 가정생활에서의 고통과 불행, 천대와 멸시는 녀성들에게만 고유한 악폐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혼을 남존녀비사회가 녀성들에게 강요한 주되는 악습의 하나라고 말하는것이다.

또한 지난 시기 과부들의 설음을 노래한 부녀가요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어 녀성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졌다. 녀성들의 설음중에 제일 큰 설음은 과부설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날 이른바 《정조》의 미명하에 녀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된 봉건적인 룰리로 하여 남편을 잃은 수많은 녀성들은 한평생 눈물과 설음의 고통속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민요 《물 한모금》, 《처자과부》 등은 약혼했거나 결혼하는 날 아니면 젊어 일찍 남편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녀성들의 불우한 처지를 눈물겹게 노래한 대표작들이다.

가요 《물 한모금》은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만 하여도 남자가 죽으면 《과부수절》하며 한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아픔을 노래하고있으며 《처자과부》는 젊은 과부의 기막힌 사연을 노래하면서 딸을 시집보낸 부모에게 어찌 그 설음을 전할가 하는 서러움과 애달픔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가요집》(1) 331. 문예출판사, 1983.)

가요 《인생이 생겨날제》에서는 청상과부의 설움많은 생을 세상에 같이 태어난 남자와의 대비속에서 한탄과 원망속에 토로하고있다. 가요는 인생이 생겨날 때 남자로 태어났다면 글배워 성공하고 활쏘아 급제하여 장부의 이름을 후세에 전할 영광도 있으련만 《전생에 무슨 죄로/ 이내몸 여자되여》 깊은나깊은 방에 천금같이 갇혔다가 열다섯나이에 이르러 백년간약 정하고 폐장온지 보름만에 잔치를 했는데 랑군이 죽을 병을 만나 출가한지 보름만에 청춘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어 과부된 이후의 서러움을 일일이 들어가며 토로하고있다. (《가요집》(1) 388~389. 문예출판사, 1983.)

18세기에 창작된 녀류시인 한영향당의 시 《서러워라 배우의 신부》는 잔치를 하고 시집으로 돌아가는 꽃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백골이 된 신랑의 상여와 동행하는 기막힌 사연을 대하는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을 토로하고있다. 단 며칠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신랑자,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건 상관할바가 아니다. 여기서 서정의 력점은 일찍 죽은 신랑자에 대한 동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제 청상과부로 일생을 혼자서 보내야 할 꽃같은 신부의 운명에 대한 그지없는 우려에 있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조선녀성들》 142~145. 근로단체출판사, 주제100(2011).)

《과부수절》은 녀성에 대한 이른바 《절조》의 고취로서 가부장적가족제도의 필연적산물이였다. 하기에 녀자에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엄격한 료리적규범아래 《절조》가 강요되었으나 반면에 남자들에게는 그 무슨 《절조》와 같은 일체의 도덕적제한이나 구속이 강요되지 않았다.

지난 시기에 《과부수절》에 반기를 든 형상도 창조되었다. 그 대표작의 하나가 바로 우화소설 《장끼전》이다.

작품은 장끼와 까투리사이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봉건적가부장제도의 모순과 봉건유교도덕의 불합리성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장끼와 까투리는 의인화된 부부이다. 작품은 남편인 장끼와 그의 안해인 까투리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가정에서 녀자를 천시하고 지배하던 남자들을 풍자적으로 조소하면서 중세기를 지배하고있던 이러한 불평등한 인간관계, 부부관계가 점차 무너져가고있던 중세말기, 18세기의 사회적풍조를 보여주고있다.

봉건유교도덕은 녀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섬기며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재가하는것을 비도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장끼전》은 이러한 봉건유교도덕과 그 불합리성을 까투리의 말을 안듣고 그만 덮에 치워 죽는 장끼와 장끼가 죽은 다음 재가하는 까투리의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준다. 장끼는 죽어가는 마지막순간에도 까투리를 보고 수절하여 자기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당부한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장끼가 죽게 된것은 바로 뿌리깊은 남존녀비사상을 합리화한 가부장적봉건사회가 빚어낸 후파라는것을 폭로하는 동시에 남편 장끼가 죽은 다음 《과부수절》에 반기를 들고 재가하는 까투리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사회의 가정내부에서 남편을 섬기며 멸시당하던 녀성들의 처지와 함께 《과부수절》로 《정렬부인》을 합리화하던 봉건유교도덕이 점차 무너져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지난 시기에 일부다처제, 축첩제도의 희생물로 되어온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통하여 봉건사회에서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를 일반화한 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일부다처제, 축첩제도는 봉건사회로부터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이르기까지 지

난 착취계급사회에서 일관하게 유지되어왔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일부다처제, 축첩제도에 의한 처첩간의 갈등 그리고 그 자식들과의 호상관계에서 희생자는 언제나 녀성들이었다.

17세기에 나온 국문소설 《홍길동전》이나 《사씨남정기》와 같은 작품들은 처첩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알뜰과 대립관계를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일부다처제, 축첩제도, 봉건적가부장제를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다. 서자의 설움을 안고 집을 뛰쳐나와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반항하고 리상적인 룰도왕국을 세우는 홍길동도 그러하지만 서자인 아들의 운명때문에 한생 설음안고 살아온 홍판서의 첩 길동의 어머니며 류연수의 본처인 사정옥이 량반가문의 대가 끊길가봐 걱정하여 체스스로 끌어들였던 첩때문에 갖은 고초를 겪게 되는 형상은 이에 대한 생동한 실례로 된다.

본처나 첩이나 가정안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마음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요 《해는 지고》에서 해가 지자 첩의 집에 가는 남편에게 첩의 집에 가려거든 나 죽는걸 보고 가라고 양탈하는 본처와 《첩의 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련못이라/ 꽃나비는 한철이요/ 련못에 금붕어는 사시장철》이라고 하는 그의 노래에는 첩에게 빠진 남편에게 본처와 첩의 사랑이 다르다는것과 그것을 가려보라는 훈계의 내용이 담겨져있다.((《가요집》)(1) 397. 문예출판사, 1983.)

가요 《약》에서도 본처와 첩의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본처가 달인 약과 첩이 달인 약과의 대조를 통하여 조소와 야유의 수법으로 남편에게 훈계하고있다.

작품에서 남편은 본처가 달인 약은 많고작고 하지만 첩이 달인 약은 많지도 작지도 않고 언제나 한 모양이라고 하며 본처를 시비하고 첩을 내세운다. 첩의 정은 그렇듯 한본새이지만 본처의 정은 약을 달인것처럼 들쭉날쭉하다는것이다. 남편의 그 나무람에 본처는 대답한다. 첩이 달인 약은 많으면 쏘아내치고 작으면 물을 붓는 그런것이지만 본책이 달인 약은 때에 따라 많고작고 해도 마음은 한본새라는것이다.((《가요집》)(1) 397. 문예출판사, 1983.)

보는것처럼 첩의 사랑은 눈가리우고 속이기 위한 사랑이라면 본처의 사랑은 진심이라는것이다. 사랑의 진짜와 가짜도 모르는 남편이 야속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형상에서 찾아보게 되는 특성은 다음으로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는것이 아니라 불우한 운명에 항거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녀성들의 형상이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남존녀비의 력사와 더불어 오랜 세월 불우한 생활과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녀성들의 수난에 찬 웨침소리는 사회의 최하층에서 천대받던 녀성들로부터 량반, 귀족계층의 녀성들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신분적차이를 초월하여 모든 녀성들속에서 제나름의 색채와 음조를 안고 울려나왔다. 지난 시기에 녀성들의 운명을 형상한 작품들에서 그 양상과 색채, 음조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조화로운 울림으로 안겨오는것은 분명 반항자, 항거자로서의 녀성들의 울분에 찬 웨침소리이다. 이러한 웨침은 비극적인 죽음으로써 불의의 운명에 항거하려고 하였던 녀성들의 형상이나 《시집살이》노래에 반영된것과 같이 고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속절없이 시들어간 평범한 녀성들에 대한 형상 등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지난 시기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들의 형상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것은 력사발전에서 녀성들이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기만 한 수난의 력사보다도 그에 항거하고 소극적이거나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



처운 투쟁과 반항의 력사가 더 즐기찬 흐름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녀성을 천시하는 남존녀비의 불평등한 사회적질곡속에서 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녀성들이었지만 순종은 어쩔수없이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이었지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의 내적정신을 관통하고있는 기본핵은 남자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응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슴아픈 현실, 불합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과 반항의 정신이었다.

9세기에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수이전체소설 《두 녀자의 무덤》(최치원)에서 마음에 없는 결혼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에 죽음으로 항거하여나선 팔랑과 구랑의 형상을 두고 어찌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여 맥없이 시들어버린 수난자들의 형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사랑의 순결함을 지키고저 꽃같은 청춘을 서슴없이 버린 그들의 죽음을 어찌 봉건적구속이 강요한 불행한 운명이 가닿은 비극적인 종착점이라고만 볼수 있겠는가.

이러한 반항자, 항거자로서의 형상이 남존녀비의 력사가 비낀 녀성형상에서 주류를 이루는것은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을 형상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특성이다.

물론 지난 시기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과 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에서 남존녀비의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차별행위에 대한 울분이나 토로하는데 그치고 그에 대한 반항과 항거의 기백이 매우 약한것이라든가 녀성들을 불행한 운명에서 구원할수 있는 방도를 예술적으로 밝힐수 없었던것과 같은 제한성은 있었지만 자기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간적존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모대겨온 녀성들에 대한 형상세계는 매우 귀중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로신의 단편소설 《축복》의 상림아주머니가 당하는 비극적인 죽음과 로씨야작가 아. 오스트롭스끼의 희곡 《죄수》의 주인공 까찌리나에게 강요되는 비극적인 운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축복》은 당시 중국에서의 녀성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고있는 대표작의 하나이다. 작품은 근면하고 선량한 상림아주머니의 비참한 운명을 통하여 당시 녀성들을 마구 팔고사고 하던 중국 봉건사회에서 녀성들 특히 과부녀성들, 재혼한 녀성들에게 차례지던 사회적인 업수임과 자기 운명을 미신적관념에서 헤아려보던 당시의 무지몽매하고 순박한 녀성들의 생활처지를 펼쳐보이면서 그러한 녀성들에게 착취사회가 강요하는것은 오직 불행과 고통, 죽음뿐이라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주인공 상림아주머니는 두번 시집갔다가 두번 다 남편을 잃은 과부이며 아들마저 잃은 혈혈단신이다. 소설에서 보다싶이 상림아주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집저집,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다니기도 한다. 거기에다가 과부라고 모두가 꺼려하며 부정을 탄다고 《중요한》 일에는 일체 얼씬조차 못하게 한다. 재혼하면 《풍속을 더럽힌 녀자》로 생각하지만 실상 상림아주머니는 두번째 남편에게도 팔리위간것이지 그가 응당한 권리행사로 재혼한것도 아니다. 남편이 죽은것만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과부라고 이래저래 업수임을 당하며 백치처럼, 천치처럼 되어버리는 상림아주머니의 운명이야말로 녀성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의 죄악을 고발하는 산 형상으로 되는 동시에 주어진 운명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모대기는 녀성주인공의 생동한 실례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두번 시집간 죄 아닌 《죄》를 씻기 위해 고이 모아두었던 은화로 마련한 문지방을 토지묘에 시주하는 상림아주머니의 성격과 행동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물론 상림아주머니가 취하는 행동 그자체는 미신적이고 허황한것이지만 차례진 운명에서 벗어

나보려고 몸부림치는 불우한 한 녀성의 정신세계의 일면을 엿볼수 있게 하는 좋은 실례라고 볼수 있다.

희곡 《뢰우》역시 봉건적인 가정적질곡, 시집살이의 고통에서 벗어나보려던 한 녀성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로씨야에서 근대적발전이 이루어지던 19세기 50년대에조차도 여전히 녀성들의 운명에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던 당시 로씨야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였다.

출가한 뒤 행복한 생활을 꿈꾸던 주인공 까찌리나의 시집살이는 폭군인 시어머니밑에서 진행된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씨 착하고 무던한 녀성으로 자라난 까찌리나는 돈밖에 모르는 완고하고 고루한 까바니하의 며느리로 들어간 후부터 늘 마음고생을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시어머니인 까바니하는 도시에서 제일 돈 많고 권세있는 상인으로서 가족들은 물론 주위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야만적인 폭군으로 군림한다.

폭군인 시어머니의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까찌리나에게 있어서 더 큰 불행은 무골충같은 남편을 섬기고 상대해야 하는것이다. 남편 찌혼은 집안에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밖에 나가서는 주색에 빠져있는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이다. 이러한 속에서 까찌리나는 마음을 의지할 자그마한 안식처도 찾지 못한채 숨막히는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까찌리나는 봉건적가정의 질곡속에서 신음하는 녀성이였지만 끝까지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녀성이기도 하다. 보리스라는 청년과의 관계를 놓고 량심상가책을 받으며 남편에게 모든것을 고백하는데서 그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완고한 시어머니와 머저리같은 남편은 그의 이러한 심정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국 까찌리나에게 차폐지는것은 그의 깨끗한 량심을 짓밟는 무지한 인간들의 비난과 조소뿐이며 주위의 더러운 여론과 시어머니의 혹독한 추궁에 견디지 못한 까찌리나는 끝끝내 뢰우 쏘아지는 어느 야밤에 불가강에 목숨을 던지고만다. 작품에서 억수로 쏘아지는 비와 요란한 천둥소리는 곧 까찌리나와 같이 불행한 녀성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간 당대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과 강렬한 분노의 감정을 상징하고있다.

희곡은 까찌리나의 운명을 통하여 당시 로씨야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움트고있던 불만과 울분, 반항의 정신을 일정하게 일반화하였으며 특히는 중세봉건적인 가정적질곡, 시집살이에 그 생활적기초를 두고 녀성들의 인권해방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녀성해방에 관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지난날 진보적인 문인들은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시들어가는 녀성들의 운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며 불우한 운명에서 그들을 영원히 건져주고싶은 뜨거운 열망을 간직하여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것이, 그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는것이 수난에 찬 운명에서 녀성들을 구원해내는것인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불우한 녀성들의 운명을 사실주의적화폭에 담아 그들을 억압하고 멸시하는 착취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가해보고 그들의 운명에 대한 사회적인 동정심과 여론을 불러일으켜보는 등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해보았지만 종시 녀성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줄수 없었으며 그와 같이 중대한 인간문제들에 해답을 주어야 할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사명에도 충실할수 없었다.

### 3. 결 론

이상에서 필자는 일련의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이 비낀 역사의 갈피를 조금이나마 헤쳐보았다.

장구한 인류력사와 더불어 여성천시, 남존녀비의 역사도 어언 수천년의 세월을 흘러내려왔다. 그 역사는 수난많은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사인 동시에 거기에서 벗어나 참된 삶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쳐온 수억만 여성들의 피타는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오늘도 세계를 둘러보면 아직까지 지나온 세기들에서와 같은 모진 수모와 천대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불행과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 여성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없이 많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들은 여성존중의 정치가 펼쳐지는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필자는 앞으로 남존녀비의 역사가 비낀 여성형상과는 대조되게 새 생활의 주인으로서 응당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복받은 삶을 반영한 문학의 창작정형과 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가한 연구논문들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온 세계가 문학이라는 인간학의 세련되고 진실한 화폭을 통하여 우리 여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똑바로 알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려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난날과는 대조되게, 오늘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만연되고있는 여성천시의 사회적풍조와는 상반되게 혁명의 주인으로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역할을 행사하는 우리 여성들의 행복한 생활상을 반영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덕과 정이 넘쳐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화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문학작품의 세계에 진실하게 반영하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남존녀비, 여성형상, 시집살이, 민며느리, 과부